

직교 집성판(CLT)

파빌리온 ‘가제노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당 건물은 유명한 건축가, 구마 겐고 씨가 설계를 담당했으며 현지에서 기른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파빌리온은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이루는 동시에, 천연 재료를 활용해 실내와 야외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몇 세기에 달하는 역사를 지닌 일본 건축의 전통도 도입했습니다.

마름모꼴의 목재 패널은 여러 장의 나무판자를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쌓아서 큰 패널로 만든 CLT(Cross Laminated Timber)라는 혁신적인 건축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CLT 제품은 안정성, 내열성, 범용성이 뛰어나며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패널은 가볍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져 콘크리트나 강철보다 환경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CLT에서는 작은 목재를 조합해 큰 패널을 만들 수 있기에 마니와 지역의 목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로 선호되지 않는 종류의 목재를 활용하는 시장도 창출됩니다. 바깥쪽에 편백나무, 안쪽에 삼나무를 사용한 CLT 패널의 경우, 외관은 고가의 사이프러스 목재와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저렴한 삼나무를 사용합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조립식 주택용으로 특별 주문한 CLT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뼈대 조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CLT 패널이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해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빌리온의 경우 처음 1년은 도쿄에 설치되어 CLT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전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해체, 수송하였고 2021년 3월, 이곳에 재건되었습니다.